

‘힘 있는’ 응원 받고 시험장으로... “잘 하고 올게요”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 시험장

포근한 날씨 속 따뜻한 ‘덕담·포옹’ 받고 수험생 입실
동고동락한 제자들 마지막 여정 함께한 교사들 ‘몽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광주지역 3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예년의 시끌벅적한 응원전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으나, 수험생의 마지막 여정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줄을 이었다.

이날 오전 7시에 광주 제26시험장 대성여자고등학교 입실 마감까지 1시간이 넘게 남은 ‘이른 시간’이었으나, 일찌감치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의 발걸음이 잇따랐다.

‘수능 환파’는 없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대로 날씨가 포근해 례패딩과 귀마개 등 예년에 봤던 중무장한 차림의 수험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긴장한 표정으로 마지막까지 요약 노트 등을 보며 입장하는 수험생이 있는가 하면, 함께 온 부모님에게 “잘 하고 오겠다”고 되려 안심시키는 이도 있었다.

한 학생은 어머니를 꼭 끌어안은 뒤 교사장으로 향했다.

교통 통제에 따라 학교 정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수험생 자녀를 내려준 부모들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향해 “잘 하고 와!”라고 응원의 말을 보냈다.

구희진(46·여)씨는 “첫째 아이의 시험이라 긴장되는데, 오히려 딸이 ‘잘 보고 오겠다’고 말해 대견스럽다”며 “열심히 공부해 온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둬오면 한다”고 기도를 했다.

그동안 동고동락 해 온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온 교사들도 몽클한 광경을 연출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4일 오전 광주 대성여자고등학교 교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예리 기자

를 북돋아 주기 위해 온 교사들도 몽클한 광경을 연출했다.

정문 앞 한 쪽에서 송원여자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호박엿을 나눠 주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최종빈(39) 송원여고 3학년3반 담임

교사는 “학생들 모두 그간 열심히 공부했던 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원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 제8시험장인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도 조용하지만 ‘힘 있는 응원’이 이어졌다.

‘의대 진학’을 위해 함께 공부해 왔다는 두 재수생은 “이번엔 꼭 성공하자”며 교문도 같이 들어갔다.

출근길에 ‘늦둥이 동생’을 바래다 준 형은 무뚝뚝한 인상과는 달리 “잘 보고 와, 일찍 들어갈 테니까 저녁 같이 먹자”며 애정을 표현했다.

입실 마감 10분 전인 오전 8시45분부터 정문 앞은 고요해졌다. 그렇지만 적막 속에서도 잠시 후 시험을 치를 자녀를 응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곳곳에서 들렸다.

좀처럼 발길을 옮기지 못한 한 어머니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수능을 보겠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이 컸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자녀의 도전을 응원해주는 것이라 생각해 마지막까지 함께하러 왔다”며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붉은 눈시울로 말했다.

순찰차 긴급 이송·신분증 전달... “일단 끝” 후련하기도

●광주·전남 수능 이모저모

수험생들이 초·중·고등학교 등 ‘공교육 12년’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도운 가족·경찰 덕에 광주·전남에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큰 탈 없이 마무리 됐다.

◇“시계 없어요” 한마디에 땀 한방울
14일 오전 7시33분께 광주 제26시험장 대성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교문 앞으로 황급히 뛰어 나왔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수험생은 말리시 뛰어오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선 안도했다.

교문 앞에서 학생을 인도하는 순찰요원과 동행해 학교 안으로 들어간 이 여성은 딸아이의 손에 시계를 쥐어주고 꼭 안아줬다.

“힘내라”는 말을 끝으로 학교 밖으로 나온 어머니는 “딸아이가 시계를 깜빡하고 간 게 보여 급히 전화했다”며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너무 떨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모범운전자회 등 ‘맹활약’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부터 관내 시험장 곳곳에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모범 운전자 등 인력 401명을 배치해 입실 종료 시각인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생 8명을 수송하고 신분증 미지참자 1명에게 도움을 줬다.

입실 종료 후 약 25분 앞둔 오전 7시55분께는 남구에서 교사장을 착각한 수험생을 순찰차로 긴급 수송했다.

전남경찰청도 자치경찰 등 385명을 투입해 특별 교통관리와 수험생 호송 등을 실시했다.

오전 8시11분께는 자녀의 신분증을 택시로 전달하던 어머니에게서 도움 요청 신고를 접수해 수험생에게 대신 전해줬다.

◇‘대박기원’ 응원전...사·도교육감도
이날 광주 석산고등학교 총학생회는 광덕고등학교 앞에서 ‘수능 대박’, ‘꽃길만 걷자’ 등 응원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선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광덕고에서 수험생들을 향해 “광주 학생을 응원합니다”라며 격려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도교육청 간부들과 나주 봉황고등학교에서 수험생

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땀은 결코 여러 번 흘려야 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끝났다”...해방감 ‘만끽’
이날 오후 5시에 광주 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는 4교시까지만 응시한 뒤 퇴장하는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후련한 표정과 미소를 지으며 교문을 나선 학생들은 마중 나온 부모님의 품에 안겼다.

수험생이 나오기 전부터 입구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자녀들에게 꽃다발과 케이크 등을 건네며 “고생 많았다”

고 다독였다.

김지우(18)양은 “오늘 하루 시험으로 수험 생활이 끝난다는 게 뭔가 허무하지만 모든 걸 잊고 폭 쉬려고 한다”며 “그간 못 봤던 드라마도 보고 라섹도 알아보려 한다”고 웃었다.

또 다른 수험생 최모(20·여)씨는 “치대를 가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만족한다”며 “원서 접수는 천천히 하고, 오늘은 우선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편안한 시간을 즐기고 싶다”고 후련함을 드러냈다.

광주·전남 수능 결시율 7.62%·8.17%

광주·전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시율이 1교시(국어) 기준 7.62%, 8.17%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1교시 기준 수능 지원자 총 1만6천748명 중 1만2천787명이 응시해 결시율 7.62%를 보였다. 이는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결시율 7.91%보다 0.29%p 줄어든 수치다. 광주는 부산에 이어 전국에

서 두 번째로 결시율이 낮았다.

전남은 1교시 기준 지원자 1만3천763명 중 1만2천639명이 응시해 8.17%의 결시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9.18% 보다 1.01%p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지원자 51만8천497명 중 46만6천287명이 응시해 결시율 10.07%를 기록했다. 지난해 10.6% 보다 0.53%p 증가했다.

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같은 혐의 부인은 대법 법리 검토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 검토 중이라 직위 상실 여부를 더 두고봐야 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 시장의 발언과 그 과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앞선 법원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봐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신의 부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아 직위 상실 위기는 여전하다.

박 시장의 부인은 공범 2명과 함께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새우 155kg·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되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도 직위를 상실한다.

음주사고·측정 거부 현직 경찰 입건

음주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이 입건됐다.

14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함평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경위는 최근 무안군 무안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려다 먼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을 찾아온 상대 차량 운전자가 A 경위의 음주 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성호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